
 <div>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div>		<div>보도자료</div>		
		배포 일시	2020. 3. 25.(목) 총 2매 (본문1)	
담당부서	항로표지과	담당자	• 과장 김학석, 담당 조영선, 주무관 김두용 • ☎ (061)280-1723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목포해수청, 신안군 만재도 등대 설치로 선박 운항 위험 해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전면해상 여객선 항로상 간출암에 통항선박 안전을 위해 ‘만재도동방등표’를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등표는 국비 12억원을 투입해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직경 2.3m, 높이 18m 규모의 원형 철골구조로 설치되며 상단의 등화는 야간에 13km 이상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어 선박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재도 전면 해상의 수중암초는 2019년 11월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거도행 쾌속선(목포항~가거도)이 중간 기항을 위해 만재도항에 접근 시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어 이번 등표 설치를 통해 여객선을 비롯하여 어선 등 선박 운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항 서남쪽 105km 떨어진 외딴섬 만재도는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상 안전 강화를 위해 만재도등대(198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하는 등대 시설이다.

목포해수청 김학석 항로표지과장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해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해역에 항로표지 시설을 확충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김두용 주무관(☎ 061-280-17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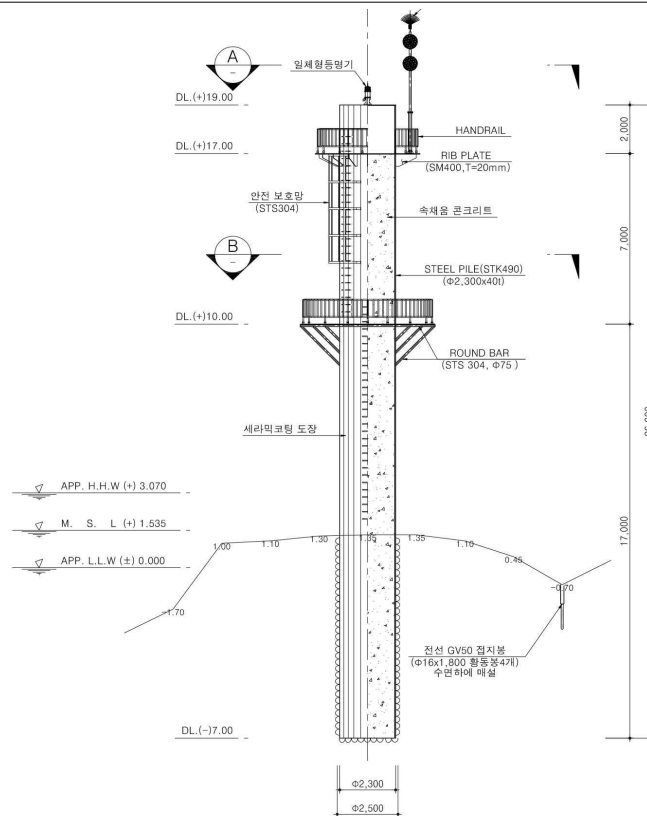
설치 대상 만재도항 전면해상 간출암



간출암에서 바라본 만재도항 전경



마산도북방등표 설치 대상지 위치도



만재도동방등표 표준단면도